

아빠 맞아? - 밥상머리 교육의 종말



글_ 백준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 부설 토론교육연구소장

친애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십시오.

저는 큰딸 승원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서를 올리는 이유는 오는 24일 새벽 독일에서 열리는 스위스와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를 친구들과 함께 치악 체육관에서 관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치악 체육관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응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도 열치는 있기에 이번 1주일간 문학, 근현대사, 사회문화, EBS 영어(단어와 독해), 수학, 음악 등을 공부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작문과 체육, 중국어, 한문, 생활과 과학 등으로, 일요일 동안 열심히 태려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학교에 가서 10시에 야자를 끝내고, 저는 바로 치악 체육관으로 향하여 치킹을 즐기며 친구들과 즐겁게 축구를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해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나갈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으나, 교통편도 문제고, 많은 인파 속에서 친구들을 찾기란 서울서 김서방 찾기와 맞먹는 듯하여 10시에 바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고 생각하실 테지만,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나랑 18세, 완전 혈기왕성한 이 나이... 부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님 화내시는 얼굴이 눈앞에 보이지만, 저는 꼭 가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친구 핸드폰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디 하룻밤 동안 안녕하시고, 소녀 이만 줄이겠습니다.

치악 체육관으로 가야 속이 후련할 듯한 딸 승원 올림

어느 날 퇴근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려 식탁에 앉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쭈뼛 쭈뼛 다가오더니 뭔가 불쑥 내민다. 보니 곱게 접은 편지다. 이 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순간 긴장했다. 직설적이어서 어찌 보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진 놈이라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한 녀석이었다.

기말 고사를 앞두고 응원에 들뜬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나보다. 하긴, 우리나라 학생치고 어느 누구 하나 부모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성적이라는 족쇄에 묶여 죄인 아닌 죄인으로 지내야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다. 공부를 잘 하면 더 잘 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얼굴을 못 드는 그들이 아니던가. 우리 사회에서 해방되어야 할 마지막 피지배 계층이 학생들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더욱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늘 차분한(!) 수학 점수를 자랑하는 딸내미가 시험을 앞두고 하룻밤 밤 가출을 감행하겠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는 없었으리라.

긴장한 녀석을 옆에 두고 편지를 읽어 가노라니 머리를 굴렸을 녀석의 모습이 흰히 보이는 듯 했다. 꽤 시간과 공을 들였을 법한 어휘나 문장 때문이었다. '때려잡겠다'는 험악하고 거친 표현도 그렇고, 생김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녀'라는 고운 말도 그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행히 어법이나 문법에 크게 어긋난 비문이 눈에 띄지 않아 그나마 안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편에 흠족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도를 맨 앞에 드러낸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었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도입부에 이어 '친구들과 경기를 관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내세운 것은 글을 시원하게 읽어갈 수 있게 만든다. 또 성큼성큼 걸어가는 글의 전개는 과감하고 단호한 마음가짐과 잘 어울린다.

본문 뒤 단락에서 '치킨을 즐기며 친구들과 즐겁게 축구를 보려고 한다'고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새벽에 나갈까 했으나 교통편도 문제고, 친구들을 찾기도 어려워 미리 나가겠다는' 대목도 그런대로 괜찮다. 비록 주장을 재강조하는 부분에서 '즐겁다'는 말을 거꾸 쓴 것이 눈에 걸려 '치킨을 즐기며 친구들과 흥겹게 축구를 보려고 한다.'는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은 약한 논거였다. 축구 경기를 관전하러 야밤 외출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응원을 하고 싶어서'라는 것뿐이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염치' 운운하는 부분은 이유나 논거가 아니라 대안의 제시 내지 반발의 무마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 핵심 논거가 약하다는 게 문제다.

흔히 논술에서 주장을 잘 전개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다. 논술의 설득력은 주장이 아니라 논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좋은 논술을 쓰는 비결은 얼마나 좋은 논거를 제시할 줄 아느냐에 있다. 충분하고, 타당하고, 주장과의 연결 고리가 튼튼한 논거를 만들어 제시할 줄 알아야 논술을 쓸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충분하다는 말은 논거가 하나 이상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으나, 대개 하나로는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축구 경기를 관전하려는 이유에는 간절히 응원하고 싶은 욕구 외에도,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목적도 있을 것이며, 또 밤거리 응원을 경험함으로써 색다른 기분 전환의 계기로 삼을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한, 두 가지 더 있었다라면 글의 설득력이 또 달라졌을 것이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은 사실에 적합한 참 근거를 대라는 뜻이다. 논증의 근거에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풍부한 독서에 의한 지적 충실 없이는 사실에 적합한 참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논거는 주장과의 연결 고리가 튼튼해야 한다. 그 주장에는 꼭 그 근거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때로 주장과 상관없는 이유를 들이대기도 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해서,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원인은 아닌 것이다. '간절하게 응원을 하고 싶다'는 이유는 주장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간절한 응원이 꼭 거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정말 간절하게 응원을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은가?

이런 말들을 딸내미한테 해주며 보니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표정이다. 기회를 주려는 찰나, 저쪽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아내가 먼저 쏘아 붙였다. "쫄쫄, 그건 직업의식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자기 딸 편지를 읽으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아빠가 세상에 어딨어? 아빠 맞아? 그냥 보내 줘..."

그 한 마디로 끝이었다. 그날의 밥상머리 교육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